

고흥군, 도양읍 도시재생 '큰 그림' 그린다

국토부 지역특화재생 공모 대비 행정협의회 통해 부서 간 협업 본격화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3일 군청 흉양홀에서 도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 방향과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도양읍 봉암리 일원 약 18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지역특화재생 공모를 대비해 부서 간 협업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고흥군 건설과 도시재생팀과 도시계획팀을 비롯해 인구정책실, 관광정책실, 우주항공추진단, 문화체육과, 경제산업과, 수산정책과, 해양개발과, 재난안전과 등 관계 부서와 고흥읍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역 수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정협의회는 건설과 도시재생팀장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도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하늘과 바다를 잇는 도시, 도양읍'을 비전으로 ▲안전한 체류형 관광환경 조성 ▲정보·연결·거점 인프라 구축 ▲주민 참여 기반의 상권 활성화 전략 등이 담겼다.

특히 녹동항 드론쇼와 연계한 드론 체험시설 조성, 낚시객 라운지 구축, 가상현실(VR) 체험관과 연계한 관광안내소 개선, 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 주차타워와 연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역사 자원을 잇는 보행환경 정비, 씬디공원 플라마켓 활성화 등 도양읍의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화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 부서들은 각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부서별 연계사업, 향후 국·도비 공모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향후 계획 보완과 협업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군 건설과 관계자는 "이번 행정협의회는 도양읍 도시재생사업을 군 전체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주민 의견과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장흥군,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본격 추진

AI 활용 기후변화대응 품목 재배기술 교육 추진

장흥군은 15일 친환경농업 실천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월 6일까지 농업 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되며,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농업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작목별 핵심 재배기술을 보급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와 외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읍·면 순회 교육으로 운영된다.

내용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뒀다.

농업인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병행 추진해 교육 참여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2025년 농업인 설문조사와 관심도를 반영해 구성됐으며, ▲AI 활용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재배 기술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블루베리 등 지역 특화작목 중심 등 총 8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농작업 안전교육을 함께 실시해 농업 현장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을 예정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한 해 영농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일정은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061-860-6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 제공

장성군이 남면 분향리, 월정리 일원 '평산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해당 지역은 2023년에 침수위험지구 '나'등급에 지정된 바 있다. 장성군은 배수펌프장과 교량을 설치하고 하천을 정비해, 극한 호우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침이다.

장성군 남면 분향리·월정리, 수해 걱정 던다

'평산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2027년 7월 착공

사업비는 군·도·군비 포함 287억 7800만 원이 투입된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주거지(4.45ha) 및 농경지(5.18ha) 피해 예방, 인명 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중순 경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재해 예방은 아무리 강조하고 준비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선제적이고 확실한 자연재해 대비로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단반트리 지리산요양병원,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기탁

구례군은 단반트리 지리산요양병원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405,430원과 쌀 20포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단반트리 지리산요양병원은 현재 구례군 내 유일한 요양병원으로,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병원 측은 지역에 뿌리를 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병원 직원들의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기부금을 마련하여 더욱 뜻깊다. 병원은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매년 1회 정도 정기적인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례/한정호 기자



영광군,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점검 실시

영광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관내 보건지소 7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공중보건조사 및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년간 운영된 프로그램과 의료장비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상반기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향후 강화해 나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관별 진료 현황 및 복무 실태 ▲건물 내·외부 시설 및 환경 ▲전기·소방 등 안전관리 실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무안군, 한빛원자력본부 농기계 기탁으로 농업 현장 지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4일 영광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면)로부터 범용관리기 10대와 농업용 굴착기 1대를 지원받아 해제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한빛원자력본부가 무안군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추진한 것으로, 임대용 농기계 확충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 농작업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기계 임대를 통해 농업인의 장비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안은 이번 기탁으로 농기계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에도 농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